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 연구

-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Social Exclusion of Migrant Women in Multi

- Cultural Home with Focused west Chungnam Province -

김진욱 (혜전대학교 부교수 - 주저자)

Abstract

Jin-Wook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that women who immigrated to Korea through marriage exper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exclus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of social-exclusion that the women experience, and proposes the resolutions for the social-exclusion. Since women who immigrated to Korea through marriage can legally achieve Korean nationality after two years of entry, they experience social-exclusion from beginning. Furthermore, they experience various discriminations from employment, workplaces, legal system, and family life. Based on a survey targeting women who immigrated to Korea through marriage, this study identified few interesting findings.

First, the women frequently manage their everyday life under relatively controlled environment due to social, cultural exclusion. They are also excluded from neighbors due to the sense of rejection against foreigners. Second, the women suffer from economic exclusion more than political exclusion. They currently have difficulties in managing family life due to financial issues. Third, the reason for the women to mostly come to Korea is to earn money. However, they suffer from mental hardness since their low income makes it hard to wire money to their families in their native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y feel positive about the social benefits from governments and local authorities. In conclusion, Korean governments and society need to take actions that change the images of the women. The actions include to develop social network of multi-cultural women and to avoid discrimination in the women.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ir inconveniences in everyday life; to fairly provide political opportunities; to minimize their psychological discomfort by providing economic opportunities through job creation; and to provide legal systems that support them to live as one of Korean people.

주제어: 다문화 이주여성, 사회적 배제, 정치적 배제, 경제적 배제, 정부지원금

Keywords: multi-cultural immigrated women, social-exclusion, political-exclusion, economic-exclusion, benefits from governments

I.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경제활동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이다.(박영미, 2008)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차별(윤성호, 2005)과 소외(박병현·최선미, 2001; 심창학, 2001)를 경험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여성들에 비해 결혼이민자 신분으로 입국한 이주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가중적인 차별과 소외를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통해 논의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한 후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우리 사회의 이주여성 문제를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사회적 배제는 이주여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각에서 논의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관련 문제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¹⁾ 즉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배제 측면에서 이주여성 문제는 배제로 인한 결과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연구가치가 크다. 사회적 배제는 빈민층이나 하층계급, 장애인 고령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집단들이 지배적인 사회관계로부터 이탈되거나 이미 이탈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윤정향, 2003), 이것은 배제의 결과적인 측면만을 가리킨다. 한편 이주여성은 노동시장 및 사회적 관계에서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지 않으며,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심창학, 2001) 그리고 각 영역들은 독립된 영역이라기보다는 상호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요청된다.

1960년 프랑스의 Pierre Masse에 의해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사회적 배제는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즉, 국가의 행정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강현정, 2009:7) Rene Lenoir는 「Les Exclus, un Francais sur Dix(1974)」에서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 학대받은 아동, 약물중독자, 문제가정 등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배제된 자(les exclus)’라고 범주화하면서,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고(강신욱, 2006), 사회적 배제는 1990년에 이르러 기존의 ‘빈곤’과 ‘불평등’을 대체하며 사회정책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²⁾

1) 매년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정보화 사회의 부적응과 빈곤, 각종 배제로 인한 차별화로 우리 지역사회의 동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 사회적 배제를 Room(1995)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해체시키는 과정”, Walker(1995)는 “매일의 삶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관련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서, 빈곤과 개념 구분을 시도한 바 있다. 그 이후 Jordan(1997)에 의하면, “사회전체의 권력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개개 시민들의 시장과 정치에 대한 참여가 현실생활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사회적 배제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주여성은 성(性)과 언어적 장애를 원인으로 한국여성이나 국내의 남성에 비해 교육, 취업과 같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김진옥, 2007) 이와 같이 교육과 고용 등 주요사회 영역으로부터 배제는 이주여성들의 빈곤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³⁾ 즉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차별과 소외가 바로 빈곤으로 표출되며, 빈곤은 단순하게 물질적 결핍차원을 넘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경험하는 배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은 물질적 박탈이나 소득부족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배제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해당 사회의 일반적 관행이나 정상적인 교류관계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복잡적이고 변화하는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Hills, J. et. al., 2002: 6-9)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이하에서 “이주여성”으로 약칭함)의 사회적 배제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소외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의 심각성과 지역사회 성원들과 공생할 수 있는 사회통합(social inclusion)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EU와 선행연구에서 변수로 활용한 고용, 건강, 교육(지역사회프로그램), 가족생활, 사회적 참여, 기타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태분석(김안나, 2007: 368-374; 윤성호, 2005: 155-157; 이원호, 2006: 371-374; Atkinson & Davoudi, 2000:440; Halleröd & Larsson, 2007:19-20)을 통해 변수 간 연관성을 규명하며, 본 연구에서 필요한 변수와 척도를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이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느끼고 있는 사회적 배제정도를 파악한 후 그 대책을 모색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개념정립과 척도제시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이주여성 관련 통계자료로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3개 부처 합동으로 전국 결혼이민자 대상 제1회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조사⁵⁾ 자료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충남 서부지역에 한

3) 빈곤은 이주여성의 건강 및 가정유지와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는 원인이 되는 바, 이주여성을 사회적 배제 기제에 의해 빈곤을 경험하는 인구집단으로 주목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상관성을 살펴볼 수도 있다.

4)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는 공동체의 외부인에 대한 배제(jordan, 1996), agency의 부재, 자발적 배제와 자기배제, 수입, 노동시장, 사회적 상호작용, 건강(paugam, 1996), Edwards & Flatley(1996), Howarth et al., 1998), 사회적 박탈(Townsent, 1979), 사회적 비참여의 원인 : 차별, 만성질환, 지리적 위치, 문화적 인식, 물질적 부족 (Nolan & Whelan, 1996) 사회적 보호망 밖의 다문화 가정(Evans, 1998), 정치·행정·법 제도의 부재(Sayce, 2000), 자치체나 의사결정력의 부족(Askonas and Stewart, 2000) 등 다양하다

5)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2008년 9월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9조('07. 7월 시행)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되며, 이 조사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실태파악을 위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

정하고 있는 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병행한다. 이주여성은 홍성, 청양, 예산, 서산, 태안, 당진, 보령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출입하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 된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조사원 사전교육을 통해 일대일 인터뷰 방법을 사용한다.

II.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회적 배제와 이주여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Berman과 Philips(2000)에 의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하나의 층위로 간주하면서 사회적 불안, 사회적 배제, 아노미를 분리하여 설명하였는데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불안과 아노미의 중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사회적 불안(social insecurity)이란 “생존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부터 한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가 여부”를 의미한다면, 사회적 배제란 “평등의 원리 및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들로부터 제외된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불안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과 관련시켜 사회적 배제를 설명하며, 아노미(anomie)란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심창학(2004)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란 “구성원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 권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를 박탈당하면서 사회의 주류 질서로부터 유리되는 역동적 과정”이라 하였고, 문진영(2004)은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정서적 차원에서 사회의 주류질서로부터 유리되는 역동적 과정”을 사회적 배제라고 정의한 바 있다.⁶⁾

강신욱(2005)은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자원의 박탈 또는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지고 있는 상태가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태로, 즉 개인이나 집단이 소비하는데 필요한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 혹은 그 영역에서의 권리의 박탈”을 사회적 배제라 정의하였고,

국민민학회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이 실태조사는 동년 5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외국인주민현황조사를 기초로 전국의 결혼이민자 15만 3천여명(전수)을 대상으로 동년 7월 하순부터 8월말까지 실시하였다.

6) Leisure와 Leibfried(1999)는 사회적 배제는 단일 차원에서 ‘많이 가지느냐’ ‘덜 가지느냐’의 정도 문제가 아니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리고 ‘내부에 존재하느냐’ ‘외부에 존재하느냐’의 문제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배제를 통계적인 자원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사회적 삶의 기회와 사회적 제도의 참여기회의 감소에 관한 것이며, 개인의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제약 조건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박영미(2008)는 “기존에 빈곤을 설명하던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경제구조와 정책변화,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소외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사회적 배제를 정의한 바 있다.⁷⁾

이와 같이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 배제 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에서 정의하면,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란 “다문화 가족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고용과 근로, 지역 활동과 교육 등과 같은 제반 사회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받게 되는 제한이나 박탈감”을 말한다.

2.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선행연구

1) 다문화 가정과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선행연구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직접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를 여성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분야를 선행연구로 분석하였다. 먼저 양순미(2007)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정책의 모색”에서 적응지원을 위한 교육강화, 자활 및 인적 자원화를 유도하는 정책, 이민관련전담기관설치,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초중고 교과서 개정 등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박영미(2008)의 “복지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열악하고 매년 완화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측면에서 여성의 참여는 남성에게 비해 상당히 배제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에서는 여성의 숫자가 많고, 반면에 사회보험은 여성이 월등히 적은 현실에서 우리 정부는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성이 복지국가 주요 정책대상에서 여전히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관료제 내부에서도 남성에게 비해 상당부분 배제되고 있다는 점(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 7.2%, 핵심부서 여성의 비율은 18.9%)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배화옥·김유경(2009)의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적 분석”에서는 여성장애인의 5개 배제영역 - 교육, 고용, 가족, 건강, 사회참여 - 을 선정한 후 측정하려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은 타 비교집단에 비해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사회적 배제를 통해 빈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7) Figueiredo와 Haan(1998)은 사회적 배제를 “경제적 박탈이나 사회적 고립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된 개인이 겪는 상황이나 과정”이라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응집력의 붕괴, 양극화의 발생, 사회적 관계의 파편화 등과 같이 사회내의 상황이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Paugam(1995)은 사회적 배제는 사회의 여러 차원과 상호 강화됨으로써 ‘취약성의 소용돌이(spiral of precariousness)’에 갇힐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 통합의 불안정성과 결핍은 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관계의 박탈, 건강상태와 사회적 참여의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관계적 측면과 분배적 측면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났다. 사회적 배제의 모든 지표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배제 지표를 통제했을 때, 성보다 장애가 빈곤을 더욱 예측하였다. 빈곤은 역으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역동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와 빈곤은 상호 인과적이며 순환적인 것이라는 점을 규명하였다.

김태수(2009)는 “한국 외래인 정책의 배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는 배제적 측면과 포용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2007)과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등의 전향적 입법, 영주권 제도의 검토와 이민정책연구원의 신설추진 등 국적법의 전면적 개정추진,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체계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내실화 추진, 교포에 대한 투표권 부여 검토 등에서 그 포용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통제위주의 정책과 외국인의 차별성, 국적 취득(귀화)조건의 제한, 탈북자의 외국인 대우, 귀국교포에 대한 자동적 국적취득의 불인정 등 포용은 형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어, 점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포용의 형식성과 배제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권승(2009)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방정부 공무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과 종족배제주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공무원들은 외국인에 대해 국적을 부여하는데 엄격하며, 동남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더 크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실제와 이상에서 상당한 괴리감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2)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은 국가와 학자들 간 의견이 다양하다. 1970년대 프랑스에서 사회적 배제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도 전혀 받지 못하는 즉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후 Room(1995)은 사회적 배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해체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Walker(1997)등은 매일의 삶에서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요인들을 표현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빈곤과 구분하였다. 영국의 SEU(2004)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를 ‘사람들 혹은 어떤 영역이 실업, 비숙련, 범죄율이 높은 환경, 부적절한 보건 그리고 가족과피 등과 같이 연관된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 일어 날 수 있는 바를 요약해서 일컫는 용어’라고 규정하였다.

EU의 사회적 배제 전망팀은 사회적 배제를 ‘상당기간 지속되고,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직업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포함한 다차원적 취약’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경제적·정치적·문화적 배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Giddens는 사회적 배제에 대해 사회학자들이 새로운 종류의 불평등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후에 정치가들이 받아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선행 연구 및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측정도구를 결정해야 한다. Berghman(1995)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 대해 최광의로 설정하였으며, 민주적·법적 체계에서의 배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복지국가 체계로부터의 배제, 가족·공동체 체계로부터의 배제 등 4가지 배제현상을 강조하고 있다. 로빈슨과 오펜하임(1998)은 사회적 배제 지표를 소득영역, 노동시장영역, 보건영역 그리고 교육영역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국의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 연구하였다.

Burchardt et al.(2001)은 사회적 배제의 차원을 소비영역, 생산영역, 정치적 관여영역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영역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드러나는 직접적인 배제를 반영하는 지표를 찾았다. Atkinson외(2000)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사회적 배제의 반대 개념이며 사회적 포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5가지 차원, 즉 물질적 복지, 건강, 교육과 교양, 그리고 생산적인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의 참여 등을 제시하였다. O'Brien & Penna(2006)의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는 적절한 사회적 참여, 사회적 통합의 결여, 권한의 결핍과 같은 관계적 문제에 주안점을 두었다. 때문에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근본적인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으며, 취업, 교육, 참여 등과 같이 사회의 제반 기회와 주요결정과정으로부터 격리되는 불이익의 결과로 이해된다.(Silver, 1994:533) 즉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라는 역학관계에서 빈곤현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배제는 단순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넘어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이며 관계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Atkinson외, 2000: 441)

국내에서 윤성호(2005)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 차원을 소유차원, 소비차원, 교육차원, 사회적 관계와 참여차원, 생산차원 등 5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을 시도하였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배제에 의해 빈곤에 장기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고, 성(性)통합적인 노동과 생활의 균형유지 그리고 사회개발 및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다문화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종합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여성가구나 근로빈곤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박영미, 2008; 배미애, 2007; 송다영, 2003; Carr & Chen, 2004) 국내외 관련연구를 고찰한 결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영역을 교육, 고용, 건강, 가족, 사회참여의 5개로 축약한다.(김안나, 2007; 윤성호, 2005; Atkinson & Davoudi, 2000; Halleröd & Larsson, 2007)

〈표 1〉 사회적 배제의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학자(연도)	측정에 포함된 영역들	비고
Berghman(1995)	민주적·법적 체계, 노동시장, 복지국가 체계, 가족공동체	
Robinson & Oppenheim(1998)	소득, 노동시장, 보건, 교육	영국의 사회적 배제 측정
Burchardt et al.(2001)	소비, 생산, 정치적, 사회적 상호작용	
Atkinson외(2000)	물질적 복지, 건강, 교육과 교양, 생산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의 참여	사회적 포용 측정
O'Brien & Penna(2006)	적절한 사회적 참여, 사회적 통합의 결여, 권한의 결핍	
심창학(2001)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윤성호(2005)	소유, 소비, 교육, 사회적 관계와 참여, 생산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에 장기적으로 노출
박영미(2008)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가(경제활동참가율, 남녀임금격차, 전문관리직 종사자 여성비율), 사회보장제도의 포용(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가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부관료제 내부에서의 참여(여성공무원 비율,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주무부서의 여성공무원 비율)	성장, 분배, 정책결정 및 집행에 참여 측정

*자료 : 박영미(2008, 17)의 연구논문 자료를 활용하여 일부 재구성함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란 “이주여성들이 사회·경제·정치·문화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감 등에서 배제되어 나타나는 각종 문제의 현상들”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3. 사회적 배제의 분석차원과 연구분석의 틀

위에서 살펴본 여성, 결혼이민자,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 대한 접근을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수행한다. 먼저 ‘사회적 교류정도’에 따른 사회문화적 배제, ‘정치활동이나 관여’와 관련된 정치적 배제, ‘경제활동 참여주체와 그렇지 못한 대상자들 간의 차이 및 소비활동 과정’에서 경제적 배제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을 통한 사회적 배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사회문화적 배제

이주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그들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한다. 가족, 이웃 그리고 여가 및 사회활동을 같이하는 동료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주여성들은 다양한 물질적·비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심리·신체적 안녕을 추구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표현되는데 보통 사회적 관계망이란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아감이나 소속감 또는 물리적 도움을 주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의미한다.(Litwin, 1996)

한국의 농촌지역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시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적인 사회관계망을 갖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지원망도 역시 가족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진옥 외, 2007) 실제로 이웃, 친인척, 동료, 친구 등과의 긴밀한 사회적 관계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서적·물질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은 단기간에 형성하기 어려운 단점 있지만, 그 대신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또 물질적 자원의 보유 유무와 무관하게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기 때문에(신명호 외, 2004), 이주여성에게는 특히나 경제적 빈곤과 같은 문제에 유용할 수 있다. SEU의 보고서에 사회적 관계는 가족(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의 관계에서 접촉의 빈도를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데, 가족 내의 유대와 소외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배제의 또 다른 지표는 문화 활동의 참여와 관련된다. 문화 활동으로 부터의 배제는 사실상 한 사회가 지닌 상징적 문화 또는 그들 이웃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편 SEU에서는 문화 활동의 지표로 영화 보러 가는 것, 아트 갤러리 방문, 박물관, 극장, 콘서트, 오페라 관람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특징 잡아주지만 제한 적인 특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배지연 외, 2006: 14) 사회적 배제를 관계적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로 사회참여에 대한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가족, 친척, 친구 등과 정기적인 접촉을 가지지 못하여, 개인적 지지망 으로부터 단절되고, 결국 연대감이 약화되어 사회문화적 배제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Dahl, Fløtten, & Lorentzen, 2008:233)

2) 정치적 배제

영국의 SEU(2006) 보고서에 의하면 정치활동의 참여란 건강한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정치단체, 무역단체와 환경단체, 교회나 기타 종교단체, 임차단체, 거주그룹(사례: 반상회), 동네 방범대, 자선단체 등이 포함되며 기타 자원봉사 조직이나 가장 최근의 선거참여 등이 포함된다. 충남발전연구원 자료(모선희 외, 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주여성의 일부가 종교단체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교단체, 운동단체, 문화활동 단체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의 사회활동참여나 정치활동참여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경험의 부족은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직까지 이주여성들은 정치적 경험이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고,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을 외부에 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정치적 배제는 시민활동의 참여와 관련되고 이것은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되는 요인으로 보이며, 정치적 영향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⁸⁾

3) 경제적 배제

경제적 배제는 주로 빈곤과 하층계급, 적절한 고용을 통해 통상적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자원의 부족과 관련되며, 이것은 빈곤과 경제활동(노동시장) 참여와 연관이 된다.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사실 매우 유사한 개념이어서 혹자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동일한 개념을 보기도 하나,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빈곤은 사회적 배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배지연 외, 200:12)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배제와 관련하여,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전업주부와 취업자로 구분하였고, 경제생활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소비자 행태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은 빈곤상태가 매우 심각하며⁹⁾, 빈곤은 경제활동의 참여로부터 배제와 관련된다. 결국 경제적 배제는 빈곤과 경제활동의 참여와 밀접하여 이주여성 빈곤연구나 소득보장정책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주여성은 일반여성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이주남성에 비해서도 고용의 배제를 경험한다. 일반여성에 비해 언어나 문화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이주여성의 고용은 낮을 것이며 고용의 배제는 곧장 임금의 차이로 직결된다.(Baldwin & Johnson, 1995: 569)

4) 심리적 복지감에 따른 사회적 배제와 그 밖의 영역

사회적 배제 영역은 다소 모호하다. 따라서 대부분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배제를 다루지만, 기타 심리적 복지감, 건강서비스 교육, 주거배제 등을 포함시키는 학자들도 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인식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사회환경의 변인 등 다양한 요인들은 심리적 복지감에도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

8) 과거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물질적 분배문제로 이해되었지만, 최근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분배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사라세노(saraceno)는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분열과 개인의 사회질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Chau & Sam, 2001:104) 배제 개념이 경제적 결핍, 빈곤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차원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결핍상황을 일컫는다는 점을 말해준다.(김안나, 2007:355)

9)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빈곤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은 재산 및 가계소득으로 알 수 있는 바, 상당수의 이주여성들은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로 가사와 육아에 임하고 있으며, 여유 있는 생활이나 친정으로 송금은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 지표들이 모두 만족스러울 경우에도 이주여성들은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복지감은 정책형성과정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5) 지표구성과 연구분석의 틀

(1) 사회적 배제측정을 위한 지표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사회적 배제수준과 관련하여 Burchardt, Le Grand & piachduo(2002)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고, 최재성 외(2009) 연구논문에서 제시한 사회적 배제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 내에서 주요활동에 참여하고 싶음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적 배제의 하위차원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교류, 생산활동, 정치적 활동, 소비활동으로 구분되었다.

〈표 2〉 사회적 배제수준 측정을 위한 사회적 배제 지표

구분	내 용	비 고
사 회 적 교 류	나는 가족원,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을 위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일손을 자주 제공해 주는 편이다.	
	나는 고민이 있는 가족원, 친척, 친구 또는 이웃에게 조언을 잘해주는 편이다.	
	내 주변사람들은 내게 경제적인 도움이나 일손을 자주 제공해주었다.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이나 마음의 위로를 해 주었다.	
사 회 적 배 제	시위참여 등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편이다.	
	정치단체(예: 정당, 정치인 관련단체 등)의 행사나 모임에 자주 참여하는 편이다.	
	시민단체, 권익옹호단체, 환경단체의 행사나 모임에 자주 참여하는 편이다.	
	지역의 주민모임 또는 주민자치단체(예: 부녀회, 노년회, 학부모회 등)의 활동에 적극적이다.	
	각종 서명활동(사회정치문제 및 지역사회 관련)에 자주 참여한다.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제시(예: 시민불편사항 신고)에 적극적이다.	
생 산 활 동 및 소	내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경제적인 지원이나 일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내가 고민을 이야기 한다면 내게 조언이나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는 우리사회 또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후원이나 기부를 자주하는 편이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직장, 가정 또는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비 활 동	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직장, 가정 또는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시간은 적절하다.(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다)	
	가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예: 직업활동, 부업 등)	
	나는 성취감이나 자아 실현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직장, 가정 또는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끼니를 거르거나 라면 등 영양가 없는 음식으로 식사를 대충 때운 적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새 옷이나 새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지 않은 경우가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과의 외식이나 여가활동(연극영화관람, 여행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편할 정도로 집안의 냉방이나 난방의 사용을 자제한 경우가 있다.	
	차값이나 식사 값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사람과 만남을 피한 경우가 있다.	
심 리 적 복 지 감	이주여성들은 입국 후 국내생활에 대부분 만족하지 못한다.	
	이주여성들은 각종 배제로 인해 우울하거나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여성들은 주로 모국의 동포들과 잘 어울리는 경우에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편이다.	
	이주여성들은 정부기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크게 보호를 받고 있는 편이다.	
	이주여성들은 취업 등으로 경제적 수준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자료: 최재성 외(2009, 321) 참조¹⁰⁾ 재구성.

먼저 사회적 교류는 개인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어느 정도 융화되어

10) 강현정(2009)은 노년기 사회적 배제 논문에서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사회적 배제 측정 지표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영 역	지 표	
사회적 배제	경제배제	- 중위소득 50% 이하 이주여성	
	근로배제	- 실업자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주여성	
	심리적 배제	- 복지정책 및 행정에 대한 만족도	
	사회참여배제		- 종교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이주여성
			- 친목단체(본국 출신모임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이주여성
			-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하지 않는 이주여성
	- 기타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주여성		

있는가를 의미한다. 둘째, 정치적 관여는 지역사회나 국가적, 정치적 사안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참여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생산 활동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참여 정도를 의미한다. 넷째, 소비활동은 재화나 사회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섯째, 심리적 복지감은 이주여성이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할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 총 문항은 위와 같이 구성된다.

(2) 연구문제와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의 실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여부에 따른 하위집단별 이주여성의 삶의 질적 수준을 비교하여 연구하기 위해 4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살펴보고, 셋째,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 예측요인을 파악하며, 넷째, 사회적 배제 여부에 따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이주여성을 하위 군집으로 유형화하고, 유형화된 각 군집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군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이주여성의 개인특성(학력, 한글구사능력, 시부모와 동거여부, 결혼생활만족도)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2.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각 하위요인별 배제수준은?

연구문제3. 이주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배제는 차이가 나는가?

〈그림 1〉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분석의 틀



Ⅲ.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실태분석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이 겪게 되는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이므로 조사대상은 당연히 이주여성에 한정된다. 이주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사회적 배제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는 지정학적 특성을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 조사대상지역을 농촌지역에 한정하였다. 특히 충남 서부지역의 홍성, 청양, 예산, 서산, 태안, 당진, 보령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형태로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았듯이 도시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사기간은 농번기를 지나 자치단체의 행사기간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수업일정에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였고, 각 지역별로 20~40명씩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¹¹⁾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며, 198명의 응답자 중 불성실한 13명을 제외한 185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교육도우미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내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FGI)를 실시한다.

〈표 3〉 설문조사 구성

주요내용		관련변수	척도	비고
사회문화적 배제 측면		사회적 교류(경제, 일손)교환 배제, 심리적 교류, 다문화가족 혜택 배제, 행정기관 지원제도 배제, 동네배제, 문화활동 배제	5점	
정치적 배제 측면		사회참여, 정치참여, 참정권 제약, 정치인 이해수준, 다문화가족 참여, 대표성 배제	5점	
경제적 배제 측면	생산 측면	취업선호도, 가사나 육아만족도, 경제적 도움, 보람과 칭찬, 취업희망정도	5점	가사노동자
		경제적 역할, 실직가능성, 차별대우, 구직활동 물리성	5점	취업자
	소비 측면	월 생활비, 가족생활수준, 여가활동, 정보화 수준, 의료보호, 사회보장, 결혼조건이행, 주거환경	5점	
심리적 배제 측면		한국생활 만족도, 우울성, 불투명한미래, 모국 이주여성과 교류, 경제적 자립 후 심리, 정부기관혜택, 다문화가족 자긍심, 경제적 수준과 생활만족도	5점	
인구사회학적 측면		연령, 학력, 한글구사능력, 출신(국적), 배우자 연령, 배우자 직업, 배우자 학력, 시부모와 동거여부, 가족과 초청여부, 동거여부, 모국과 연락빈도, 결혼만족도, 한국거주기간	명목·서열 척도	

11) 회수된 설문지 198부중 유효설문지는 청양33부, 예산33부, 보령27부, 서산22부, 태안27부, 홍성13부, 당진30부로 185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연구하기 위해 변수구성, 척도제시, 표본구성, 조사 및 분석기법과 통계자료분석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특정도구 개발과정에서 영국의 SEU(2006)의 사회적 배제의 실태조사와 심창학(2001), 윤성호(2006), 최재성(2008)의 자료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배제로 측정하였으며, 기타 사회적 서비스로부터의 배제, 동네주민 배제, 이주여성 차별인식을 함께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와 문화 활동으로 측정하였는데, 사회적 배제로부터의 배제는 시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기타 가족,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계를 통한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고민이 있을 때 관심을 갖고 들어 준다',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 알려 준다',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도움을 준다', '친정집 일로 고민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 문화활동은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기관(agency)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예를 들면, 김장 담그기, 가족사진 컨테스트, 우리음식 교양강좌 등)에 참여와 간접적 문화활동 영역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내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 영화를 보러가는 것,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 외식하기, 관광하기 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였다.

정치적 배제는 시민활동과 정치적 활동 및 정치인의 인지정도로 측정하였는데, 여기서 시민활동이라 함은 정당활동의 참여, 반사회 및 주민활동의 참여를 말하며, 정치적 활동 및 정치인에 대한 인지 정도는 이주여성이 정치행위나 정치참여, 정치인을 알고 있는 여부 등을 중심으로 6개 문항을 제시하여 질의하였다.

경제적 배제는 경제활동 참여유무와 주관적 빈곤감을 측정하였다. 경제활동 참여는 현재하고 있는 일의 유무로 측정하였고, 주관적 빈곤감은 타인에 비해 본인들이 빈곤하다고 인식하는지를 5점 척도로, 재정상태는 은행계좌, 저축, 개인연금, 종신보험, 개인보험 유무와 대상집단의 특성상 본국의 친정부모에게 송금여부와 본인이 소비활동(의생활, 정보화 혜택, 여가 및 외식, 의료 등)과 정부보조금 수혜정도 및 주거복지 등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¹²⁾ 그 밖에 심리적 측면의 복지감을 조사하여 입국이후 만족도, 우울감, 모국출신자들과 교류, 정부지원의 만족도, 행복지수 등을 중심으로 이주여성 차별인식에 관해 측정하였다. 이주여성 차별인식은 배지연 외(2006)의 논문에서 사용된 노인차별인식척도와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관련 선행연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무시, 기피, 소외 요인

12) 이주여성의 상당수는 본국의 가족들이 빈곤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주여성의 결혼동기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며, 특히 우리나라 총각들은 결혼을 위해 일시불로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결혼이후에도 친정에 대한 원조를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받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 자료를 분석해 보면, 결혼 이후 친정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으며 다문화 가정이 파경을 맞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에서 사회적 배제와 관련이 되는 소외요인을 활용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특성과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등의 기술적 통계와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¹³⁾ 응답자의 사회적 배제의 경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T검정, 상관관계분석, 일원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¹⁴⁾

2. 조사결과

1) 이주여성의 개인특성(출신국, 학력, 한글능력, 시부모와 동거여부, 결혼만족도 외)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거의 절반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동일수준으로 많으며, 태국 및 캄보디아, 몽골 및 우즈베키스탄, 일본, 기타의 순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이주여성은 주로 2~30대인데 비해, 배우자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가 20.5%, 50대가 12.9%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4〉 이주여성 개인 및 배우자의 특성

(괄호안 : %)

이주여성 출신국가		배우자 나이	
중국	32(17.3)	20대	4(2.1)
일본	7(3.8)	30대	38(20.5)
베트남	89(48.1)	40대	116(62.7)
필리핀	32(17.3)	50대	24(12.9)
태국·캄보디아	11(5.9)	60대	3(1.5)
몽골·우즈베키스탄	10(5.4)	합계	185(100)
기타	4(2.2)		
합계	185(100)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조사에 응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는 “그저 그렇다”는 보통수준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인 입장이 47%이며, 특히 20%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약 10%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에 대한 대책은 시급해 보였다. 이주여성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고, 중졸, 대졸, 초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13) 신뢰도 분석 부분은 지면관계상 추후에 별도로 보완하기로 한다.

14)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따른 빈곤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 있는 부분은 연구에 포함하기로 한다.

한글구사능력은 약 10%가량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30%는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의 직업은 농림어업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는 비정규직 등으로 보여 지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무직도 7%에 이르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의 학력은 절반이상이 고졸이며, 20% 이상이 중졸이하이고 대졸은 전체의 21.6%에 그쳤다. 한편 이주여성들의 친정인 모국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약 절반 가까이가 비교적 자주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10%가까이는 거의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이주여성 개인 및 배우자의 특성

(괄호안 : %)

결혼만족도		이주여성학력		한글구사능력		배우자 직업		배우자 학력		모국연락빈도	
매우 불만	5(2.7)	초졸 이하	19(10.3)	불통	2(1.1)	농어업	56(30.3)	초졸 이하	5(2.7)	전혀 안함	8(4.3)
불만	14(7.6)	중졸	64(34.6)	거의 불통	16(8.6)	자영업	21(11.4)	중졸	35(18.9)	거의 안함	10(5.4)
보통	79(42.7)	고졸	66(35.7)	보통	112(60.5)	사무직 외	36(19.5)	고졸	105(56.8)	가끔 연락	77(41.6)
만족	50(27.0)	대졸	27(14.6)	약간 구사	39(21.1)	기타	59(31.9)	대졸	40(21.6)	자주 연락	82(44.3)
매우 만족	37(20.0)	대학원	9(4.9)	원활	16(8.6)	무직	13(7.0)	대학원	0(0)	매일	8(4.3)
합계	185(100)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시댁식구와 동거여부를 알아보았는데, 조사대상자의 64.9%가 독립가정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거가족도 35.1%에 이르러 시부모나 시댁 식구와 함께 거주하여 가사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친정식구들과 동거여부(방문 포함)는 조사대상자의 32.4%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은 결혼 후 모국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국가족을 국내로 초청한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와 비슷한 통계수치를 보여주었다.

〈표 6〉 시댁 및 친정식구 동거·초청 여부

(괄호안 : %)

구분	시댁식구와 동거여부	친정가족동거 여부	모국가족 초청여부
예	65(35.1)	60(32.4)	79(42.7)
아니오	120(64.9)	125(67.6)	106(57.3)
합계	185(100)		

2)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각 하위요인별 배제수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주여성들은 결혼 후 국내에 입국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및 심리적인 측면 등에서 사회적 배제감을 느낄 수 있는 바, 각 변수별로 범주화 하여 5점 척도로 질의하였다. 즉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 정도를 4가지 하위요인 별로 비교해 본 결과, 정치적 관여정도 및 활동 변수에서 사회적 배제감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사회문화적 교류나 경제활동 및 소비행태측면의 경우 역시 보통 이상의 사회적 배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인 배제감이 가장 적었다.

〈표 7〉 사회적 배제에 대한 변수별 기술통계량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문화교류정도	185	1.00	5.00	2.6610	.69439
정치적 관여정도		1.00	4.50	2.2220	.76577
경제활동참여정도		1.29	3.64	2.6554	.41931
심리적 배제감		1.50	4.25	3.0169	.48374

주)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배제감이 높다는 의미임.

3) 이주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문화적 교류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감은 학력과의 상관관계(r)가 0.212로 유의수준 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문화교류 배제감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 관여 및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감은 국내 거주기간과의 상관관계(r)가 0.153으로 유의수준 5%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즉 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치적 관여 및 정치활동에 있어서 배제감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및 소비행위에서 있어서 사회적 배제감은 한글구사능력 및 배우자의 나이와의 상관관계(r)가 각각 -0.149, -0.186로 유의수준 5%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본인 연령과는 유의수준 1%에서 -0.247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즉 한글구사능력이 좋을수록,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가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감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감과 한글구사능력과는 유의수준 5%에서 0.183의 상관관계(r)를 나타내 한글구사능력이 좋을수록 사회적 배제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만족도는 네 개 유형의 배제 중 사회문화교류 배제감 만이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관계는 0.171로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사회문화교류 배제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 개 유형의 사회적 배제감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정치관여 배제감은 사회문화교류 배제감과 0.571(p<0.01), 심리적 배제감은 사회문화교류 및 정치관여 배제감과 각각

0.314(p<0.01), 0.421(p<0.01)로 나타났다. 이는 곧 사회문화교류 배제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정치관여 배제감 및 심리적 배제감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심리적 배제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정치관여 배제감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인구통계학적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연령	학력	한글 능력	배우자 나이	결혼생활 만족	거주기간 (개월)	사회문화 교류	정치 관여	경제 활동	심리적 배제
연령	1									
학력	.051	1								
한글 능력	.261**	.067	1							
배우자 나이	.620**	-.175*	.130	1						
결혼생활 만족	-.177*	.142	-.039	-.188*	1					
거주기 (개월)	.623**	.057	.442**	.398**	-.158*	1				
사회문화 교류	-.104	.212**	.040	-.143	.171*	.001	1			
정치 관여	.055	.119	.102	-.017	.033	.153*	.571**	1		
경제 활동	-.247**	.128	-.149*	-.186*	.076	-.129	.101	.083	1	
심리적 배제	.133	-.038	.183*	.081	-.012	.121	.314**	.421**	.006	1

*p<0.05, **p<0.01

사회적 배제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순수한 상호관계를 보다 엄격히 판단하기 위해 네 개 유형의 사회적 배제감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즉 회귀분석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된 변수의 회귀계수는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적 배제감에 미치는 순수효과를 의미한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문화적 교류에 있어서 배제감은 이주여성의 학력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고학력일수록 사회문화교류 배제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결혼생활만족도는 유의수준 10%에서 연령은 부적(-)관계를, 그리고 결혼생활만족도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서 연령이 높을수록 배제감이 높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문화적 교류에 있어서 배제감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 관여 또는 활동에 있어서 배제감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한 기간에 대해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치적 관여나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감이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 및 소비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감은 이주여성의 연령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배제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 본인의 학력과 배우자의 학력에 따른 배제감은 유의수준 5%에서 이주여성의 학력은 부적(+)관계를 배우자의 학력과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서 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배제감이 낮고, 배우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이나 소비행위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감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배제감은 이주여성의 한글구사능력만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한글구사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배제변수 간 회귀분석

구분	사회문화교류배제감		정치적관여및활동배제		경제활동참여및소비		심리적 배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상수)	2.180*** (.391)		1.659*** (.440)		3.289*** (.231)		2.606*** (.278)	
연령	-.013† (.008)	-.158	-.005 (.009)	-.058	-.015** (.005)	-.297	.006 (.006)	.097
학력	.135* (.052)	.195	.072 (.058)	.095	.076* (.030)	.182	-.023 (.037)	-.049
한글능력	.028 (.072)	.031	.027 (.081)	.028	-.054 (.042)	-.101	.105* (.051)	.170
배우자 학력	-.001 (.075)	-.001	.051 (.085)	.048	-.109* (.044)	-.187	-.025 (.053)	-.038
결혼생활 만족	.093† (.053)	.132	.022 (.060)	.028	.021 (.031)	.049	.013 (.038)	.026
거주기간 (개월)	.002 (.002)	.095	.003† (.002)	.185	.001 (.001)	.065	.000 (.001)	-.015
R ²	0.081		0.043		0.125		0.046	
†p<0.10, *p<0.05, **p<0.01								

3. 조사분석 결과의 시사점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해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배제감을 서로 다르게 느끼고 있으며, 본인의 한글구사능력이 높을수록, 남편과의 차이가 적을수록, 소통에 애로가 덜하여 상대적으로 배제감이 덜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럽거나 경제적인 만족감이 낮고, 모국과 소통이 적을수록 각종 변수에서 사회적 배제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정치적인 배제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서 정치참여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심리적인 안도감이 크며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 수준분석과 함의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주여성의 연령대, 출신국가, 학력, 시부모 동거여부, 주거형태, 배우자의 특성 및 관계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의식, 사회적 교류, 정치적 참여, 경제활동에서 취업자와 가사노동자 그리고 이들의 소비행태, 심리적 복지만족도에 따른 배제 등 다양한 지표를 중심으로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배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는 다양하며, 입국동기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와 귀결되므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정이나 배우자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글구사능력이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감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배우자와 연령차가 커서 가정생활에 부적응 할 가능성이 크며(각종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주여성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가족과 배우자, 이웃 등과 소통이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적잖으며, 사회, 정치, 경제적 소외로 인한 부적응 현상은 사회적 배제감이라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자의 절반이 베트남 출신으로 이주여성 가운데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조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한글구사능력 부족으로 방문도우미 등을 활용하였지만 질문응답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질문문항이 난해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일부 오차도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내국인에 비해 사회적 배제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부분적으로는 예측했던 것보다 심리적 복지감 측면에서는 사회적 배제감이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이주여성의 차별은 제도적 차별이라 할 수 있는 '입국 후 2년 경과해야 국적 취득정책'이 우리 사회의 이주여성 차별주의로 인해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극단적인 행태의 주변화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의 결과일 수 있다. 이주여성 차별은 직장생활, 고용, 정부기관의 제도나 프로그램, 그리고 가정 등 개인의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주거와 여러 가지 사회적 특권 등을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 배제시키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사회적 배제와의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성을 보여준다.

1) 사회·문화적 배제

이주여성들은 가족이나 친지 및 이웃 등을 배려하기에는 경제적, 사회적, 시간적, 언어적 능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으며, 반대로 가족을 포함한 이웃들에 대한 배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담자의 일부는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 폐쇄적인 가정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 상당수 제도권에 노출되지 않은 이주여성들은 통제 하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사회적 교류의 경우도 매우 제한적이다.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사업에도 반드시 가족이 동행하였으며, 단독으로 오는 사례는 극히 일부였다. 그 이유는 교통편의 제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개별 활동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 이탈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사회적 배제에서는 이웃으로부터의 배제에도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이주여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둘러싼 지역에 대한 감정과 지역주민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동네로부터 배제당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배제의 단면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동네 배제는 지역 내의 주민과 이주여성 간의 관계 또는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정치적 배제

조사과정에서 의외로 사회적 배제의 하위영역 중 관심이 적었던 지표가 바로 정치적 관심이었다. 즉 이주여성들의 1차적인 입국 동기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 결과 정치적 측면에서는 참여수준이 자발적, 비자발적 동기에 관계없이 참여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본인들의 성향 또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된 후 정치적 관심사로 부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3) 경제적 배제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양육문제와 가사전담, 남편 및 시부모의 반대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친정에 보낼 비용마련이 가장 크며, 현재 가족들이 제공하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심리적 배제

일부 학자들이 기타 그 밖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내용을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영역에서 사회적 기본 서비스의 배제, 동네 이웃으로부터 배제, 이주여성차별인식

의 변인 등에 대해서 관련 내용이 적절한 영역별로 분류하여 질문하였다. 한국 입국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후회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송금이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친정도우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과 가족 간의 불화, 남편과 관계 등의 이유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며, 정부나 각 기관으로부터 받는 제도적 혜택에 대한 복지감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1) 사회적 연계망 확충 및 다문화 인정

본인 가족은 물론 주변의 지인과 모국의 동료들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구성원으로 활동을 확대해야 하며,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도 똑같이 우리 국민이자 지역사회 주민임을 감안하여 각종 차별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정치적, 시민참여 기회 확대

이주여성의 경우 국적을 취득(국내입국 후 신고일로부터 2년경과)해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며 그 이후 참정권이 주어지는 바, 먼저 합법적인 혼인절차를 거치고 2세가 태어난 경우 등 국내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국적취득 절차를 보다 간소화 하고(많은 경우에 이주여성이 종속적인 관계로 국적전환 등의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빈번함) 국내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 생활, 문화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이나 멘토를 통해 설명해 주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참정권이 주어진 경우에는 가족이나 주변의 배려를 통해 본인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3) 경제활동기회 제공

이주여성들의 결혼동기 중 상당 부분은 경제적 문제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에 대해서 별도의 취업기회를 제공·알선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통한 만족감을 높여주고 입국 시 개인적으로 수립한 목표를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한 것이 육아문제 해결과 보육, 일자리를 구하는 것 등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주여성들에게는 모국의 친정에도 일정 부분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생활에 안정감이 더해질 것이다.

4) 심리적 안정을 높여주기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비교적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만, 일부 가정의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이나 혜택에 대해 만족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배제감을 적잖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제도권 내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경우는 만족감이 높지만, 여전히 제도권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벤트성 사업에 익숙해져 있어 만족도는 그만큼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상집단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한 후 욕구충족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지원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실시하고, 탐색적 연구를 통해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경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각종 사회제도(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 복지감 등)에 대한 사회적 배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사회적 배제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이주여성은 '빈곤문제'나 '삶의 질적 저하' 내지는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적잖게 사회적 배제감을 느끼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학력에 따라 각종 배제감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가정만족도에는 입국기간이나 배우자의 직업 및 경제적 능력과 시가 및 가족동거 여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감은 사적 관계인 가족문제에서 발단되므로 기본적으로 다문화 가정 내에서 시작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다양한 문제형태로 파생될 수밖에 없어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이나 자치단체 내 유관시설을 통한 이벤트성 행사가 사회적 배제감을 완화시키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본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점 가운데 입국기간이 5년 이내의 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취업을 위해서 선결해야할 보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다만, 몇 년 전부터 보육비를 지급받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절대적인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입소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였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처(2010a).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2009).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 강현정(2009). 「노년기의 사회적 배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승(2009).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 담당공무원의 인식분석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 36(1): 35-60.
- 김교성·노혜진(2008).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 측정과 일반화선형모델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4집 (2008년 9월), pp.133-16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미나(2009).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행정논총」. 47(4): 193-223.
- 김상균외(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
- 김승권·조애정·민현주(2010).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안나(2007). EU사회적 배제 개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연구 :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통권 제25권 1호 (2007년 봄), pp.351-379. 한국유럽학회.
- 김안나(2007).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통권 제32호 (2007년 가을/겨울), pp.227-254. 한국사회이론학회.
- 김옥일·채경진·박광국(2009). 다문화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115-135.
- 김태수(2009). 한국 외래인 정책의 배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14권 제3호 (2009. 9), pp.59-80. 한국부패학회.
- 김태수(2010). 외래인에 대한 한국형 사회적 배제 지표의 개발 시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4호 (2010년 2월), pp.367-393. 서울행정학회
- 김형용(2009). 지역사회 빈곤과 배제, 사회적 신뢰는 중요한가? : 57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2권 (2009년 겨울), pp.203-226.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09.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모선희 외(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편)
- 문진영(2010).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2호(2010년 5월), pp.87-107. 청목
- 박대식·마상진(2007). 사회적 배제론 관점에서의 농촌사회 양극화 분석. 「농촌경제」. 제30권 제3호 통권120호 (2007년 7월), pp.1-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수향(2010). 2010년 유럽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극복의 해. 「국제노동브리프」. vol.8

- no.1 (2010년 1.2월), pp.100-113. 한국노동연구원.
- 박영미(2008). 복지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18권 제4호 (2008년 2월), pp.11-41. 서울행정학회
- 배미애(2007).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지역 차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제24집 제1호 (2007년 6월), pp.151-19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배지연·노병일·곽현근·유현숙(2006).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33호 (2006. 가을), pp.7-27. 평화당.
- 배화옥·김유경(2009).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제 29권 제2호 (2009 겨울), pp.55-7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다영(2003). 사회적 배제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295-319.
- 송미영(2008).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한국노년학연구」. 통권 제17권 (2008), pp.49-72. 한국노년학연구회
- 신동면(2008). 「동아시아국가의 공공부조」. 서울:집문당
- 원숙연(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49.
- 윤성호(2005). 한국노동빈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1). pp.149-176
- 이혜경(2009).노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46호 (2009. 겨울), pp.315-336. 한국노인복지학회
- 장지연·양수경(2007).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1호 (2007년 3월), pp.1-22. 한국노동연구원
- 최재성·강영숙·김진욱(2009).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인지된 사회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1권 (2009년 여름), pp.309-341.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최종혁·이연·유영주·안태숙(20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 문화복지실천가 대상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1호 (2010년 2월), pp.291-316.
- 한승준(2009). 지자체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 269-291.
- Atkinson, R. & Davoudi, S.(2000).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context, development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8(3). pp.427-448.
- Barry, Brian(1998). Social exclusion, social isol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John Hills; Jullian Le Grand, David Piachaud(ed.). Oxford: oxford press.
- Dahl, Fløtten, & Lorentzen(2008). Poverty Dynamics and Social Exclusion : an analysis of Norwegian Panel Data. *Journal of Social Policy*. 37(2):

231-249.

- Donnison, D.,(2001). The changing Face of Poverty. in May, et.al(eds).
Understanding Social Problems: Issues in Social Policy. Oxford:
Blackwell.
- Halleröd, B. & Larsson, D.(2007). Poverty, welfare problems and social
exclu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7, 15-25.
- O'Brien & Penna(2008). Social Exclusion in europe: some conceptual issu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7. 84-92.
- Litwin, H.(ed)(1996). *The Social network of older people: Across-national
analysis* Westport: Praeger Publishers.
- Silver, H.(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r Review. 133(5-6). 531-578
- Spicker, P.(2002). Poverty and the Welfare State: Dispelling the myths,
Catalyst Working Paper.

접수일(2013년 10월 09일)

수정일자(2013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 14일)